

# 제 잔이 넘쳐흐릅니다

My Cup Overflows

시편 23:1-6

그리니치 한인교회

2011년 6월 12일 설교

<sup>1</sup>여호와와 내 목자, 난 모자람 없네. <sup>2</sup>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쉼의 물로 이끄시네. <sup>3</sup>내 영혼을 되살려 의의 길로 가게 하시네.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sup>4</sup>설령 내가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간다 해도 악이 두렵지 않... 습니다. 그대가 함께 계시니까요. 그대의 막대기 그대의 지팡이 이것들이 있어 마음 든든합니다. <sup>5</sup>제 대적들 앞에서 밥상을 차려주시고 제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니 제 잔이 넘쳐흐릅니다. <sup>6</sup>선과 자비가 틀림없이 저를 평생 따를 것이니 제가 여호와 집에 길이 살겠습니다.

## 목자와 양

“여호와와 내 목자. 난 모자람 없네.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쉼의 물로 이끄시네.” 아름답지요? “이스라엘의 노래 잘 하는 사람” 다윗의 대표시를 (삼하 23:1) “배달겨레의 말 잘 하는 사람” 권 목사가 옮겼으니 걸작입니다. 푸른 풀밭, 쉼의 물이 있으니 전원적이지요. 또 목자와 양이 등장하니 목가적입니다. 전원적이다 목가적이다 우리말은 다르지만 영어로는 다 패스터럴입니다. 패스터가 목사 아닙니까? 그러니 패스터럴은 목사-스럽다는 소리지요. 목사도 사실 이렇게 분위기가 좀 있어야 됩니다.

여호와와 내 목자, 난 모자람 없네. 여호와가 내 목자시라면 나는 양이겠지요? 하나님과 우리는 목자하고 양 사이입니다. 양은 모든 걸 목자에게 의존하고 목자는 양을 먹여 살리고 보호해 줍니다. 양은 풀을 먹고 사니까 목자가 양을 풀이 많은 곳으로 데리고 다니지요. 그런데 양은 참 어리석어서 말도 잘 안 듣지만 이동하다가 자칫하면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길을 잃지 않도록 잘 인도해 주어야 됩니다. 게다가 양은 약하기 짝이 없는 동물입니다. 늑대나 다른 동물이 와서 해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어야 되는데 잠시도 한 눈을 팔 수가 없는 게 목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양 같은 우리를 누가 지키시는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가 누굽니까?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아닙니까? 오늘도 이 우주를 다스리시고 하나하나 섭리하시는 분이지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또 참새 한 마리의 생사도 주관하시고 우리 머리털까지도 다 헤아리시는 자상하신 분입니다 (마 10:29-30). 이 하나님이 우리 목자이십니다. 사람 목자라면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의 사랑부터 완전하지 못하지요. 또 양을 아무리 사랑하고 양을 보호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능력이 안 되어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돌보는 것도 목자가 양을 돌보는 것하고 비슷한데 자식들이 해 달라 하는데 돈이 없거나 시간이 없거나 체력이 안 되어 못 해주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를 먹이시고 나를 돌보시는 목자는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능력도 무한하시지만 나를 향한 사랑도 무한하십니다. 그러니 결론이 됩니까? “난 모자람 없네!”

모자람이 없다, 참 대단한 표현입니다. 아쉬울 게 없습니다. 왜요? 필요한 걸 다 채워 주시니까요. 더 바랄 게 없습니다. 왜요? 원하는 건 이미 다 가졌으니까요. 그래서 시편 23편은 감사의 시편입니다. 감사와 찬송으로 꼭 찬 시편입니다.

## 먹고 쉼

도대체 뭘 어떻게 해 주시기에 모자람이 없을 정도일까요?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쉼의 물로 이끄시네.”

“푸른 풀밭”이라 했는데 원문은 “새 풀의 풀밭”입니다. 풀이 오래 되면 색이 짙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막 난 풀은 연두색입니다. 새파랗습니다.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에다 비타민 미네랄까지 풍부하고 또 부드러워 먹기도 좋습니다. 그런 새 풀로 뒤덮인 풀밭이 푸른 풀밭입니다. 그런데 그런 풀밭에 눕게 하십니다. 양은 풀을 서서 뜯습니다. 그런데 왜 눕습니까? 먹을 만큼 먹었다는 말이지요. 배가 불러 누워 습니다. 풀은 배고플 때는 먹이가 되지만 배부를 때는 카펫이요 쿠션입니다. 새 풀을 배부르게 먹고 새 풀 위에 별령 드러눕습니다.

그런데 먹기만 하면 아쉽지요. 마실 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을 물로 인도합니다. 무슨 물입니까? “쉼의 물”입니다. 쉬는데 뭐가 습니까? 물이 쉬는 거라면 잔잔한 물이 되겠고 그 물을 마시는 양이 쉬는 거라면 쉬면서 마시는, 그래서 마시기만 하면 휴식이 되는, 그런 물이겠지요. 양이라는 동물 입장에서 본다면 잔잔한 물이 마시기가 쉽겠고 그런 물을 마시면 나도 휴식이 될 거니까 물도 쉬고 양도 습니다. 목자가 나를 그런 물로 이끄십니다. 쉼의 물은 양의 놀이터

요 휴식공간입니다.

푸른 풀밭은 먹고사는 우리 일상의 삶입니다. 날마다 먹을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 하셨는데 그 기도가 날마다 응답이 되는 겁니다. 사람은 또 돼지가 아니니 먹기만 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쉬어야 됩니다. 여가활동이 필요하고 문화가 있어야 됩니다. 쉼의 물은 그런 문화의 공간입니다. 사람다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다윗의 첫 감사는 일상의 삶으로 드리는 감사입니다. 날마다 먹고 마시면서 고마운 줄 모르는 우리 인생을 향한 가르침입니다. 숨 쉴 공기가 가득합니다. 간밤에는 비가 내려 시원합니다. 상쾌한 날씨, 아름다운 환경... 감사하십니까? 오늘도 아침 드셨지요? 그냥 먹는 걸로 모자라 어느 게 살 안 짜냐, 어느 게 몸에 좋으냐 따지며 먹지 않습니까? 그런 걸 먹을 수 있어 얼마나 감사하십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건강하게 안 다치게 지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줄 생각이나 하십니까? 꼭 다쳤다가 나아야 감사하는 건 좀 늦지요. 문화생활도 하시지요? 텔레비전에 좋은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컴퓨터도 있지요. 책도 봅니다. 가끔 공연도 보러 가지 않습니까? 저도 아이들 음악회에 자주 갑니다. 푸른 풀밭, 쉼의 물이지요. 감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 기도에 응답하셔서 먹여 주시고 지켜 주시는데 우리는 무덤덤하게 지내지 않았는지, 감사 대신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았는지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 되살아난 영혼

푸른 풀밭과 쉼의 물이 있어 전원적이던 시가 3절에 와서 분위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내 영혼을 되살려 의의 길로 가게 하시네.” 되살리는 건 다시 살리는 겁니다. 내 영혼이 전에는 어땠다는 말입니까? 죽었거나 아니면 죽어가고 있었다는 말이지요. 여호와가 내 목자라 모자람이 없다고 하더니, 푸른 풀도 마음껏 먹고 물도 실컷 마시며 쉼다 하더니, 어떻게 죽을 지경까지 갔습니까?

양이 많다 보면 대열에서 이탈하는 양도 가끔 생깁니다. 그러면 목자는 그 양을 인도하여 바른 길로 가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따금 목자가 못 보는 사이 대열에서 이탈해 아예 길을 잃는 양도 생깁니다. 사는 게 힘들어 그럴 수도 있겠고 괜히 반항하느라 그럴 수도 있겠지요. 처음에는 나 가고 싶은 대로 갈 수 있으니 신도 나겠지요. 하지만 그렇게 혼자 길을 잃고 헤매면 금방 기운이 빠지고 그러다 구덩이에 빠지면 굶어 죽기 십상입니다. 혹 사나운 들짐승이라도 만나면 그대로 죽을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이 바로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안 따르고 슬쩍 빠져나왔는데 신이 난 건 잠시, 금방 배가 고프고 목도 마르고 겁도 덜컥 납니다. 늑대라도 나타나면 어떻게 합니까? 긴장, 초조, 불안 가운데 사방을 헤매는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 목숨, 사는 게 사는 게 아니지요. 그런데 저기서 목자가 허겁지겁 달려와 나를 안더니 어깨에 메고 돌아가 다시 양 무리 가운데 넣어 줍니다. 내 영혼을 다시금 살려 주시는 게 바로 그겁니다. 목자의 보호에서 벗어나 죽었던 나를 목자가 다시금 찾아 삶의 자리에, 생명의 자리에 놓아 줍니다.

그러면 나는 의의 길을 가게 됩니다. 바른 길, 올곧은 길입니다. 목자의 보호 아래 가는 길입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길입니다. 나랑 같이 목자의 보호 아래 있는 다른 양들과 함께 이 길을 갑니다. 생명이신 목자에게서 떠나 있을 때는 죽음이었었는데 목자에게 또 목자의 보호를 받는 양에게 돌아오니 다시 살아납니다.

## 하나님의 영광

“내 영혼을 되살려 의의 길로 가게 하시네.” 여기서 길은 통로, 곧 좁은 길을 가리킵니다. 영어로도 웨이 (way)나 로드 (road)가 아닌 패스 (path)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좁은 길, 곧 생명으로 이르는 길이지요. 길이 좁으니 곁으로 새기가 쉽습니다만 이 길이 생명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니 이 길에서 벗어나는 건 위험천만입니다.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는, 좁은 길로 되돌아가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으로 가게 되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벗어나면 안 되지만 어리석은 게 양이라 종종 벗어납니다. 죽을 줄도 모르고 벗어납니다. 그럴 때마다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의의 길, 좁은 길,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그 분의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는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출 3:14). 한 번 약속하시면 절대 변하지 않는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목자가 되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고 보호하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시는 겁니다. 보호해 주마 하셨는데 보호를 못 받고 다치거나 죽게 된다면 양도 양이지만 양을 지키기로 한 목자 체면이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도 사실 하나님께 약속했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따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약속을 어기고 대열에서 이탈했습니다. 길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가 약속을 어기든 말든 상관 없이도 당신이 하신 약속을 지키

십니다. 그래서 결국로 가는 우리를 붙잡아 다시금 의의 길로 되돌려 놓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를 드립니다.

이 두 번째 감사는 나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입니다. 우리는 하루에 열 두 번도 더 변덕을 부리는데도 하나님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나를 도우십니다. 우리 구원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이 한 가지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우리 구원이 내가 믿고 순종하는 내 삶에 달려 있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를 지을 때마다 지옥의 공포에 사로잡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다시금 구원의 자리로 이끄시고 믿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죄에 빠져 지옥의 그림자가 눈앞에 어른거리다가 하나님 은혜로 다시금 구원의 은혜를 회복하고 드리는 다윗의 두 번째 감사가 곧 우리의 감사입니다.

절대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한 번 하신 약속은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 내 목자이시니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이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의의 좁은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 거칠 것 없어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심의 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죽어가던 나를 되살려 다시금 의의 길, 영생으로 가는 좁은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경험했으니 이제 앞에 놓인 건 천국을 향한 탄탄대로겠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탄탄대로는 바깥 저기에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있습니다. 현실은 암흑입니다. 그런데 마음에는 밝은 빛이 비치고 있습니다.

“설령 내가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간다 해도 악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대가 함께 계시니까요.”

다윗은 이 세상을 살면서 맞볼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생각합니다. 세상 살면서 최악이 뭘겠습니까? 죽는 거지요. 죽는 것 아니면 죽을 것 같은 공포가 최악인데 그걸 “죽음의 그늘 골짜기”라 부릅니다. 그늘이니 어둡지요. 골짜기니 낮습니다. 양쪽이 높은 산, 높은 언덕이라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그런 길을 갑니다.

살다 보면 그런 경험을 합니다. 사고가 나거나 병에 걸려 죽음을 눈앞에 두는 경우도 있고 돈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세상 일이 제대로 안 되어 죽을 것만 같은 그런 힘든 세월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미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했습니다.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심의 물로 이끄시는 하나님, 죽어가던 내 영혼을 되살려 의의 길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위해 약속을 지키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을 이미 알았습니다.

죽음의 그늘 골짜기는 혼자 걸어 더욱 무섭습니다. 그런 골짜기를 친구 하고 같이 간다면 훨씬 나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 친구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온 우주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를 당신의 양 삼으시고 보호해 주마 하신 그 하나님이 같이 가십니다.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재미있게도 여기서 인칭이 슬쩍 바뀌고 있습니다. 첫 세 구절은 독백입니다. 혼자 하나님에 대해 묵상하다가 여기서는 갑자기 하나님하고 주고받는 대화로 바뀌었습니다. 다윗도 사람이라 그렇습니다. 푸른 풀밭에 누이시는 하나님, 심의 물로 이끄시는 하나님, 내 영혼을 되살려 의의 길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내 목자이니 내가 설령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간다 해도 겁날 게 뭐가 있으랴! 그렇게 고백하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그런 일이 닥친다면 어떻게 될까? 정말로 그런 골짜기를 가야 된다면요?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그렇게 되면 정말 저랑 함께 가실 거지요? 꼭 저하고 같이 가야 됩니까? 하고 말씀드리다 보니 대화가 된 겁니다. 처음 분위기로 한다면 “악이 두렵지 않네” 해야 되는데 대화로 바뀌다 보니 “악이 두렵지 않습니다”가 되었습니다.

## 막대기와 지팡이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안 보이십니다. 안 보이시는 하나님이 곁에 함께 계시는 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대의 막대기, 그대의 지팡이, 이것들이 있어 마음 든든합니다.”

막대기는 매를 가리킵니다 (욥 9:34; 21:9; 시 45:7은 임금이 쓰는 홀). 지팡이는 걸기 힘든 사람이 몸을 의지하는 도구입니다만 목자가 쓸 때는 막대기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둘 다 양이 엉뚱한 길로 갈 때 때려서 바로 가게 만드는 도구입니다. 양이 엉뚱한 길로 간다고 후려치겠습니까? 살짝 툭 치면 양이 아차 아니구나 하고 바른 길로 갑니다. 그렇지만 살짝 쳐서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좀 더 세게 치겠지요 (잠 13:24는 초달, 잠 22:15; 29:15는 채찍). 엉뚱한 길로 가 들짐승에게 잡혀 죽는 것보다 좀 세게 맞더라도 사는 게 낫지요.

배가 고프니다. 목자가 막대기로 툭툭 치기에 따라 가 보니 거기 푸른 새 풀이 지천으로 깔렸습니다. 마음껏 먹고 드러눕습니다. 목자가 또 이리저리 나를 물고 가기에 따라 가 보니 거기 물이 있습니다. 마음껏 마시고 또 쉽니다. 어느 순간은 나도 모르는 사이 내가 양 무리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죄를 지어 목자의 보호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 때 목자가 아시고 막대기로 툭툭 치십니다. 애야, 너 뭐 하니? 너 어디 가니? 그렇게 내 영혼을 다시금 생명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툭툭 치는데도 말을 안 듣고 계속 걸길로 새면 좀 세계 때리겠지요? 그래야 사니까요.

목자가 막대기와 지팡이를 정말 세계 칠 때도 있습니다. 맞으면 죽을 정도로 세계 칩니다. 양을 치는 게 아니고 뭘 치겠습니까? 들짐승을 칩니다. 양을 해치려 달려드는 짐승을 막대기로 쳐 내쫓습니다. 양을 보호하는 게 목자의 사명이니까요. 어려서 목동이었던 다윗도 들짐승을 많이 쫓았습니다 (삼상 17:34-35). 그런데 자라서 보니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지키십니다. 그러니 생각만 해도 든든하지요.

막대기는 믿음의 삶을 살면서 느끼는 구체적인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기도 가운데 인도하시고 성도들과 나누는 대화를 막대기처럼 사용해서 나를 인도하십니다. 말씀과 기도와 교제 가운데 먹고 마시고 쉬며 즐겁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경고하십니다. 죄 짓지 말라고, 양 무리에서 이탈하지 말라고, 목자의 보호에서 벗어나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강단에서 들려오는 말씀으로, 내가 홀로 읽는 말씀으로, 성도들과 서로 나누는 말씀으로 경고하시는데 듣는 내가 기분이 나쁠 때도 있습니다. 세계 치셨다는 뜻이지요? 아니면 뜻하지 않게 몸이 다치거나 하던 일이 갑자기 안 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 역시 내가 말을 안 들어 좀 세계 치시는 경우겠지요?

그렇지만 그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죽이지는 않습니다. 대신 나를 괴롭히는 대적들, 나를 죄로 유혹하는 마귀에게는 그 막대기를 있는 힘을 다해 휘두르십니다. 다윗도 그렇게 사자나 곰을 때려잡았습니다. 내 원수를 죽여 없애므로써 나를 지켜 보호하시려고 그렇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성도들이 함께 나누는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과 함께 하나님께 드려 마땅한 세 번째 감사입니다.

## 싸움과 잔치

이어지는 5절은 이 시편의 역사적인 배경입니다. 다윗이 맛본 푸른 풀밭과 쉼의 물, 영혼을 되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 죽음의 그늘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함께 있어 기뻐한 그 모든 것이 알고 보니 이 사건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온 우주를 통찰해 버린 겁니다.

“제 대적들 앞에서 밥상을 차려주시고 제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니 제 잔이 넘쳐흐릅니다.”

다윗에게는 대적이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사울이었습니다. 죽이겠다는 사울을 피해 도망도 많이 다녔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난 뒤에는 아들 하나가 대적이 되었습니다. 가장 아끼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상대로 반역을 일으켰는데 세력이 하도 커 다윗이 왕궁을 버리고 또 도망을 다니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 군대가 다윗 일행을 추격해 와 양쪽이 서로 마주보고 진을 쳤습니다. 일대 접전이 벌어지기 직전이지요.

바로 이 때 이방인을 포함한 세 사람이 여러 가지 가재도구와 갖가지 음식을 갖고 와 다윗 일행을 대접했습니다.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빼더와 양과 치즈”라 했습니다 (삼하 17:27-29). 내 몸에서 난 자식이 왕 자리를 빼앗겠다고 나를 죽이려 하는 이 민망한 처지에 그래도 왕을 섬기겠다고 필요한 온갖 것들을 갖고 와 왕을 대접하고 왕을 따르는 무리를 대접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갖고 온 도구와 음식은 다윗이 볼 때 하나님이 내려 주신 음식이었습니다. 맞은편에는 대적이 있으니 그들 앞에서, 대적들 보라는 듯 (공동번역) 차려주신 상이었습니다.

밥상만 차려주신 게 아닙니다. 기름을 머리에 발라 주셨습니다. 기름은 남보다 뛰어나다는 표시요 (시 45:7) 또 융숭한 대접의 상징입니다 (눅 7:46). 네가 반드시 이긴다 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지마 하시는 분명한 약속입니다. 아들에게 쫓겨 도망 다니는 처지는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불편한 생활도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오직 하나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깨달음입니다.

이 황송한 대접을 받은 다윗이 뭐라 노래했습니까? “제 잔이 넘쳐흐릅니다.” 잔에 부은 게 포도주인지 물인지 알 수 없지만 잔이 넘쳐흘렀습니다. 도망 다니는 처지에 대접받은 음식이 좋아야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넘쳐흐르는 잔을 보며 다윗은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잔에는 음료가 넘쳐흐르고 제 삶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쳐흐릅니다, 차고 넘칩니다, 하고 고백하였습니다.

## 오직 여호와

한 번 경험으로 깨달았습니다. 지금 나에게 보여주신 이 선과 자비는 틀림없이 내 뒤를 평생 따를 것이다! 당연하지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세요? 그 신실하심을 목숨이 위기에 놓인 지금 이 순간에도 분명히 확인했는데요? 그러니 결론이 됩니까? “제가 여호와 집에 길이 살겠습니다.”

시작할 때는 여호와가 내 목자라 했습니다. 목자와 함께 다니며 온갖 좋은 것을 얻어 누리며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여호와 집에 길이 살겠다 했습니다. 집이면 영원히 눌러 사는 곳입니다. 더 이상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하는 고백도 됩니다. 또 내가 그렇게 살도록 해 주실 거야, 하는 확신도 됩니다. 나를 선과 자비로 따르실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여호와 한 분으로 만족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처음 푸른 풀밭으로 또 심의 물로 이끄신다 할 때는 아름다운 공원을 산책하면서 쓴 시인 줄 알았습니다. 내 영혼을 되살리신다 할 때는 성전에서 말씀을 연구하다 썼나 싶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죽음의 그늘 골짜기 이야기가 나오고 원수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보니 싸움터에서 쓴 시입니다. 아들에게 쫓겨 다니다 썼습니다. 잔이 넘쳐흐른다 해 뭐 대단한 걸 마시나 했더니 알고 보니 먹을 게 없어 고생한다고 백성들이 갖고 온 구호품이었습니다.

그러니 시편 23편은 전원시도 아니고 목가시도 아니고 목숨이 오락가락하는 전쟁터에서 생사를 걸고 쓴 시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푸른 풀밭이 나오고 심의 물이 나왔으니 그런 험악한 곳에서 아름다운 면을 찾아내는 능력, 아니, 적과 싸우는 현장을 전원적이고 목가적인 곳으로 바꾸어내는 비결을 배우게 되는데 그 비결이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가 내 목자시라는 깨달음입니다.

## 감사의 삶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자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라는 것은 푸른 풀밭에서 풀 뜯다 누워 쉬고 목이 마르면 심의 물 찾아 마시며 노는 그런 삶에서는 좀처럼 깨닫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아무 어려움도 문제도 없으면 은혜도 모르고 감사도 하지 않습니다. 다윗도 나라가 안정되어 평화로울 때는 감사하기보다 간음죄, 살인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내 영혼이 죽음의 위기를 만났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되살아나면 비로소 하나님 은혜를 깨닫습니다. 평소에 나를 툭툭 치시고 때로 좀 세계 때리기도 하는 하나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도 눈에 보여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삶에서 가장 확실한 은혜의 계기는 위기입니다. 고난입니다. 죽느냐 사느냐 하는 절대절명의 위기입니다. 그런 위기에서도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정말 역설입니다.

다윗은 목숨이 오락가락하는 순간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감사와 찬송을 드렸습니다. 그런 위기 속에서 평소에 깨닫지 못하던 은혜까지 깨달았습니다. 여호와는 내 목자시라고 노래하고 여호와께서 내게 부여 주시는 잔이 흘러넘친다고 고백하였습니다. 다윗의 위기, 그가 만난 고난은 가장 큰 은혜의 계기였습니다.

우리도 사람입니다. 평소에는 감사가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툭툭 치시는 건 지도 모르지요. 조금 세계 치셔서 깨닫게 하시기도 합니다. 혹 지금 남다른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참 역설이지요. 그 어려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움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은혜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혹 지금 아무 어려움이 없는데도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하지는 않습니까? 어려움이 없는데도 은혜를 알고 감사할 수 있다면 아마 더 큰 믿음일 것입니다.

언제나 가장 좋은 것만을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입니다. 오늘도 우리 목자가 되신 하나님, 우리 목자가 되신 주 예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리며 보다 좋은 양, 푸른 풀밭에서 마음껏 먹고 놀며, 심의 물에서 마음껏 쉬며, 늘 의의 길로 가며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하나님 은혜로 이겨내면서 “제 잔이 넘쳐흐릅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권수경 목사)